롯데리아 '펩시 든든팩' 기간 한정 판매

롯데리아가 6월7일까지 '펩시 든든팩'을 판매한다. 불고기버거, 치즈스틱, 치킨너겟, 펩시콜라로 구성한 기간 한정 할인 팩으로, 정상가 대비 약 26% 할인가로 제공한다. 롯데잇츠의 '잇츠오더'에서 주문 시 추첨을 통해 갤럭시 워치4, 갤럭시 버즈2, 펩시 케이스, 워치 스트랩으로 구성한 '삼성 갤럭시 펩시 에디션'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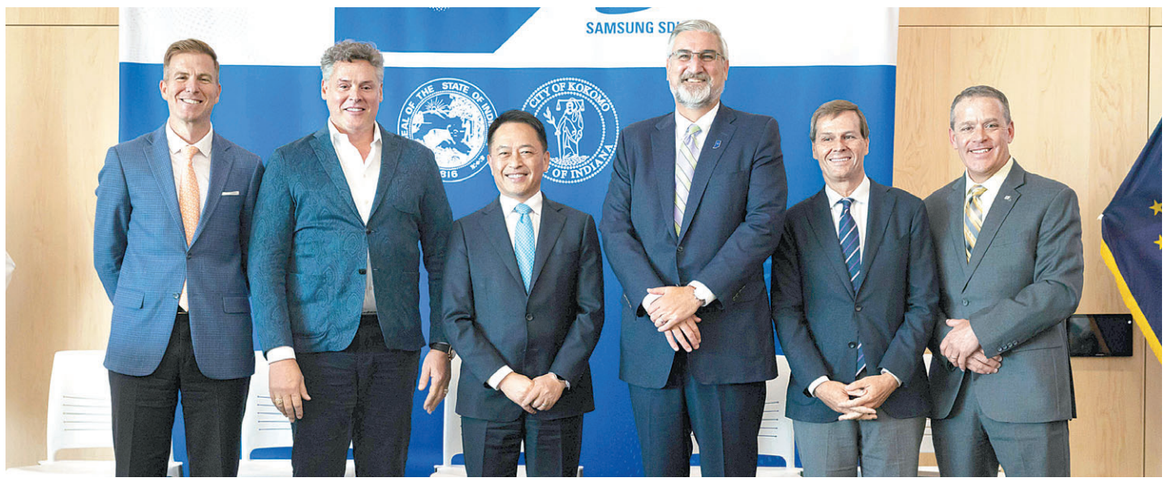
북미 향한 진격의 'K-배터리'…삼성SDI-스텔란티스 맞손

"美코코모에 3조원 투자 배터리공장 설립"

〈인디애나주〉

스텔란티스와 합작법인 설립 계약
올해 말 착공해 2025년 본격 가동
최신 기술력 적용 '프라이맥스' 생산
500여 가지 엄격한 품질 검사 진행
스텔란티스 차세대 전기차에 탑재

▲삼성 SDI 프라이맥스(PRiMX) 배터리.



합작법인 설립 체결식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쉐인 카르 스텔란티스 대외협력담당 임원, 마크 스튜어트 스텔란티스 북미COO, 최윤호 삼성SDI 대표이사 사장, 에릭 홀컴 인디애나 주지사, 브래들리 체임버스 인디애나 상무장관, 타일러 무어 코코모 시장(왼쪽부터). 사진제공 | 삼성 SDI

삼성SDI가 스텔란티스와 함께 미국 첫 전기차 배터리 셀·모듈 합작법인 부지를 인디애나주 코코모시로 선정하고 25억 달러(약 3조 1625억 원) 이상 투자한다. 스텔란티스는 피아트크라이슬러(FCA)와 푸조·시트로엥(PSA)그룹이 합병해 2021년 1월 출범한 세계 4위 자동차 브랜드다.

24일(현지시간) 양사와 인디애나주 정부는 미국 인디애나주 코코모시에서 투자 발표 행사를 열고 합작법인(조인트벤처·JV)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에릭 홀콤 인디애나주 주지사, 브래들리 체임버스 인디애나주 상무장관, 타일러 무어 코코모 시장 등 정부 관계자, 최윤호 삼성SDI 대표이사(사장)와 마크 스튜어트 스텔란티스 북미 COO(최고 운영 책임자) 등 양사 주요 경영진들이 참석했다.

●북미 전기차 생산의 전초 기지

합작법인은 올해 말 착공에 들어가 2025년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다. 초기 연간 23GWh 규모로 전기차 배터리 셀·모듈 생산을 시작해 33GWh로 확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투자 역시 31억 달러(약 3조 9215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합작법인 부지로 선정된 인디애나주 코코모시에는 이미 스텔란티스의 부품 생산공장이 가동 중이다. 여기에 삼성SDI와 스텔란티스의 배터리 생산공장까지 들어서면 인디애나는 북미 스텔란티스 전기차 생산의 전초기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합작법인에서 생산되는 배터리에는 프라이맥스(PRiMX)로 대표되는 삼성SDI의 최신 기술력이 적용될 예정이다. 프라이맥스는 지난해 말 삼성SDI가 업계 최초로 론칭한 배터리 브랜드다. 올 1월 미국 CES 2022에서 처음 공개되었고 삼성SDI가 생산하는 모든 배터리를 통칭한다.

삼성SDI는 프라이맥스에 ▲최고 안전성을 보유한 품질(Absolute Quality) ▲초격차 고에너지 기술(Outstanding Performance) ▲초고속 충전 및 초장수명 기술(Proven Advantage)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담았다.

개발 단계에서는 배터리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소재·디자인을 선정하고 제조·출하 단계에서는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AI) 검사를 도입해 불량 검출 알고리즘을 고도화했다. 모든 제조 공정에 걸쳐 500가지가 넘는 품질 관련 항목을 확인하는 등 엄격한 품질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합작법인에서 생산되는 배터리는 스텔란티스의 미국, 캐나다, 멕시코 공장에 공급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부터 순수 전기차(EV)에 이르기까지 스텔란티스 산하 브랜드의 차세대 전기차에 탑재될 예정이다.

최윤호 삼성SDI 사장은 "합작법인 부지 선정에 도움을 주신 인디애나주와 스텔란티스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스텔란티스와의 합작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북미 전기차 시장에 확고한 발판을 마련한 만큼 앞으로 기후 변화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카를로스 타바레스 스텔란티스 CEO는 "1년 전 우리는 유럽과 북미에 5개의 기가팩토리를 기반으로 하는 공격적인 전동화 전략을 추진한 바 있다"며, "이번 발표로 데어 포워드 2030에서 언급한 '탈 탄소 미래'를 향한 스텔란티스의 추진력을 보여주는 한편, 우리의 글로벌 배터리 생산 전략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쉐보레 '신형 이쿼녹스', 가솔린으로 나온다

이전 모델 대비 고효율·친환경 UP…6월 출시 예정

쉐보레의 간판 중형 SUV인 쉐보레 이쿼녹스(EQUINOX·사진)가 새로운 얼굴과 심장으로 업그레이드하고 6월 출시된다.

이쿼녹스는 토요타 라브4, 폭스바겐 티구안, 혼다 CR-V, 지프 체로키 등 경쟁이 가장 치열한 미국 시장에서 올해 1분기 콤팩트 크로스오버 부문 3위를 차지하며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는 모델이다.

이쿼녹스가 합류하면서 쉐보레는 소형부터 초대형까지 SUV 풀 라인업을 완성하게 됐다. 신형 이쿼녹스의 가장 큰 변화는 파워트레인이다. 이전 모델에 탑재된 1.6L 에코텍(ECOTEC) 디젤 엔진 대신 고효율 친환경 1.5L 가솔린 직분사 터보 엔진을 탑재했다. 신형 이쿼녹스의 제원, 가격 등을 포함한 자세한 정보는 6월 출시 시점에 공개된다.

원성열 기자

LG전자, 울트라기어 게이밍 모니터 3종 출시

48GQ900, 첫 OLED패널 탑재…블랙 표현력 눈길

LG전자는 울트라기어 게이밍 모니터 신제품 3종(32GQ950, 32GQ850, 48GQ900·사진)을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32GQ950은 32인치 4K UHD(3840x2160) 나노 IPS 패널을 탑재했다. 실제에 가까운 순색을 표현하는 나노 IPS 패널에 1ms GtG(Gray to Gray) 응답속도를 구현해 빠른 게임 화면도 매끄럽고 선명하게 표현한다.

32GQ850은 QHD(2560x1440) 나노 IPS 패널에서 1ms GtG 응답속도와 초당 240장의 화면을 보여주는 240Hz 고주사율을 지원해 역동적인 게임 화면을 잔상과 끊김없이 보여준다.

48GQ900은 울트라기어 게이밍 모니터 가운데 처음으로 OLED 패널을 탑재했다. OLED의 장점인 압도적인 블랙 표현력은 물론, 0.1ms GtG 응답속도와 최대 138Hz 주사율을 지원한다. 48인치 4K UHD 패널에는 빛 반사와 눈부심을 방지하는 AGLR를 적용했다.

국내 출하가는 각각 32GQ950 제품이 169만 원, 32GQ850은 109만 원, 48GQ900은 209만 원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홈플러스, 월마트 단독브랜드 판매
1탄은 캠핑용품…오늘부터 선봬

홈플러스는 미국 월마트와 단독브랜드 상품 공급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26일부터 월마트가 운영 중인 각종 단독브랜드 상품의 국내 정식 수입 판매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내년까지 각 카테고리별 월마트 단독브랜드 상품을 순차적으로 국내에 들여와 전국 홈플러스 매장에서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월마트의 대표 단독브랜드인 '그레이트 밸류', '메인스테이즈', '홀리데이 타임' 등 식품부터 홈리빙까지 다양한 분야의 월마트 단독브랜드 상품을 들여와 국내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방침이다.

'미국 월마트 단독 브랜드 론칭 프로젝트' 1탄으로 26일부터 영등포점, 금천점, 부천상동점 등 전국 주요 70개 점포에서 ▲캠핑·아웃도어 단독브랜드 '오자크 트레일' ▲BBQ용품 단독브랜드 '엑스퍼트 그릴' 등 나들이·캠핑용품 37종(사진)을 선보인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두산, SMR·가스터빈 등 차세대 에너지에 5조원 투자

"미래형 원전" SMR 투자 가속도
가스터빈·수소터빈 개발도 적극
로봇·첨단소재 사업도 투자 늘려

박정원 두산 회장

두산그룹(회장 박정원)이 향후 5년간 SMR(소형모듈원자로), 가스터빈, 수소터빈, 수소연료전지 등에 5조 원을 투자해 국내 에너지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SMR은 안전성과 경제성, 운용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미래형 원전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미국 뉴스케일파워와 지난 달 25일 SMR 본제품 제작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SMR 분야의 한미 기업간 협업에서 한 발 앞선 행보를 보이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 관계자는 "뉴스케일파워가 개발과 설계를 하고 두산에너빌리티가 주기기 제작을 맡게 된다. SMR 분야에서의 한미 기업 간 동맹을 맺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2023년 하반기 중 SMR 본 제품 제작에 돌입하는 것을 목표로 원전 생태계 활성화 등을 위해 관련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국내 투자자와 함께 뉴스케일에 1억 400만 달러(약 1315억 원) 지분 투자를 했으며 수 조원 규모의 기자재 공급권을 확보한 바 있다.

가스터빈과 수소터빈 사업에도 적극 투자한다. 두산에너빌리티는 2019년 세계에서 5번째로 개발에 성공한 270MW급 가스터빈을 김포열병합 발전소에 설치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는 이를 업그레이드한 380MW급 가스터빈과 신규 투자를 통해 수소터빈 자체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수소사업에 대한 투자는 수소연료전지 제품 라인업 구축을 목표로 진행된다. 두산퓨얼셀은 SOFC(고체산화물연료전지) 제품 양산을 위해 지난 4월, 새만금 산업단지에 50MW 규모의 SOFC 공장을 착공했다. 2023년까지 준공해 양산 체제를 갖출 예정이다. 두산퓨얼셀은 2024년에는 발전용 SOFC, 2025년에는 선박용 SOFC 시장에 순차적으로 진출할 계획이다.

두산은 지난 4월 진출한 반도체 사업에서도 투자를 확대한다. 국내 1위 반도체 테스트 전문업체로서 두산테스나의 경쟁력을 높여, 한국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의 핵심 기업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신사업에 대한 투자에도 적극 나선다. 협동로봇, 수소드론 등 미래형 사업과 함께 의약품 보관용 첨단소재 사업, 5G 안테나 소재 사업 등에 관한 투자를 늘려 관련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두산 관계자는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신규 투자를 진행하면서 직접 고용인원을 늘려가는 것은 물론, 산업 생태계 확대에 따른 협력회사 고용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면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안정된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

롯데관광개발, 홋카이도 단독 전세기 상품 선봬

롯데관광개발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일본 홋카이도 단독 전세기 운항 재개에 나선다. 롯데관광개발은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3박4일 일정의 홋카이도 단독 전세기 여행 상품을 출시했다. 2020년 3월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지 2년 4개월 만의 재개이다. 이번 기획은 총 4회(7월 26일, 29일, 8월1일, 4일)에 걸쳐 대한항공 단독 전세기로 진행한다. 롯데관광개발은 리오프닝(경제 재개) 시대를 맞아 유럽, 미주, 동남아 등의 해외 패키지를 출시하고 있다. 4월 홈쇼핑을 통해 판매한 북유럽 10일 패키지는 4000콜에 약 260억 원이라는 매출을 올렸다.

서울관광재단,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동 지원

서울관광재단은 여행사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등록 종합여행업 소기업을 대상으로 '서울 인바운드 관광객 유치계획'(사진)을 평가해 200개 사에 업체당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상위 60개 여행사에는 최대 400만 원까지 추가지원도 실시한다. 지원금액은 총 15억 원 규모이다. 6월14일까지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의 신청 링크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접수하면 된다. 최종 선정업체는 6월23일 이후 발표 예정이다.

편집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